

## 광주시, 군공항 이전 작업 본격화

국방부에 최종건의서 제출 ... 내년 부지 선정·2022년 완료  
상업시설·주거단지·친수공간 활용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  
새 공항부지 확보·6조원대 이전 비용 마련이 최대 과제

광주시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軍) 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에 최종 평가용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국방부 민간위원 자문을 받은 뒤 수정·보완을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를 20일께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할 이전 건의서는 국방부 평가용으로,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최종 건의서인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국방부에 처음으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 건의서를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용역, 지역순회 시 민실명회, 협의제 운영 등을 통해 수정·보완했다. 최종 이전 건의서는 다음달께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를 넘어서야 이전 후보지 선정 등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국방부 평가위원회는 국방부가 선정한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해 적정 판정을 한 바 있다.

이전 후보지는 일차적으로 예비 후보지 3곳을 선정 후 절차를 진행해 국방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적정 판정이 나면 국방부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규모는

463만평(군 기지 353만평·소음 완충지역 110만평)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전 사업비용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1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국방부 민간위원 자문을 받은 뒤 수정·보완을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를 20일께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할 이전 건의서는 국방부 평가용으로,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최종 건의서인 셈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최종 평가용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키로 해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광주시 광산구 군공항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존 광주 광산구 군 공항 부지 820만㎡(248만평)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한다. 개발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개발기관을 통한 공공방식과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의 개발형 민간합동방식, 재원확보가 쉽고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양여형 민관 PF방식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부지에 상업시설과 수변 주거단지, 대규모 공원 조성 및 친수공간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시 3대 산업 관련기업도 이

곳에 집적화를 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각인된 새로운 군 공항 부지 확보여부와 6조원대의 이전 비용 마련 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또한, 지자체가 막대한 재원을 확보, 이전 문제를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를 넘는 것이 최대 난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국방부 자문위원 등과 수차례에 걸친 자문과 회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대구 고속도로 왕복 4차선 개통 6개월

## 시간도 마음도 가까워진 영·호남 통행량 급증에 인근 관광지 '복적'

이용 차량 614만7천여 대  
한 해 전보다 12.4% 늘어  
동서화합의 가교역할 특목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옛 88을 립픽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넓어진 지 6개월이 다 되면서 영호남 교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4년 6월 왕복 2차선으로 개통해 31년간 '무늬만 고속도로' 또는 사고가 많은 점에서 '마(魔)의 고속도로'라는 말을 듣던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22일 4차선으로 확장해 재개통했다. 길이 넓어지자 오가는 차가 늘면서 인근 관광지가 복적이

17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4차선 확장 후 지난 14일까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는 614만 7235대. 한 해 전 같은 기간(2015년 12월 22일~2015년 6월 14일) 546만 9901대보다 12.4%(67만7334대)가 늘었다.

통행료 수입은 144억717만4504원에서 203억4481만1459원으로 41.2%나 증가했다. 정상 통행료 절반만 받다가 확장 개통 후 요금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다.

곡선 구간 직선화로 전체 운행 거리는 종전 182km에서 172km로 줄었다.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여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도 2시

간 1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로 30분 가장 단축됐다.

덕분에 고속도로 주변 양 지역의 관광지에는 주말 휴일마다 인파가 몰리고 지역 간 교류도 늘고 있다. 담양 죽녹원, 합천 해인사, 남원 광한루 등 인근 관광지는 물론 경주 보문단지에서 주말이면 영호남 사투리가 뒤섞여 들리는 일이 낯설지 않다.

광주에 사는 김모(38)씨는 "최근에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주에 들렀다"며 "예전에는 멀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동해안까지 구경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대구시민 이모(42)씨는 "이달 초 대나무 고장인 전남 담양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전라도 곳곳을 다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목포시청 직원들이 지난해 말 일찌감치 대구 동성로에서 목포 관광 알리기 캠페인을 하며 고속도로 확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 자원봉사자 85명도 지난해 5·18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일 경북대에서는 영·호남 교류 대학생 만남의 장이 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영호남을 오가는 발길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 고속도로가 명실상부한 동서화합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정세균 의장 "개헌, 20대 국회 전반기에 매듭"

국회의장 취임 간담회  
"면책·불체포 특권 개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기

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효불리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강

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다'고 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인식처럼 200여가

지 특권이 있다는 점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아무리 세봐도 20개 이상 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문제와 관련, "법리논란과 정당 간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 통해 어떤 논리와 입장을 수용할지 고민해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법대로 하겠다. 억지를 써서 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 직권상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인 만큼, 뭔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주저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이홍재의 세상만사 '남자들은' ▶2면  
"1억5천만원 주고 교사 됐다" ▶6면



신팔도유람-부산 스쿠버다이빙 ▶18면  
KIA 마운트 한승혁 복귀 ▶20면



##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 7th Asia Europe Culture Ministers Meeting

**주제**

"문화와 창조경제 (Culture & Creative Economy)"

일자: 2016. 6. 22(수) ~ 6. 24(금)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일원

주최: 

참석: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51개국 대표단, 2개 국제기구 대표단 등 200여명

www.asem2016cmm.org